



장대비 뚫고 재벌개혁 불 당겨

7.22 가자 재벌개혁

6월 15일 금속노조가 재벌개혁의 불을 당겼다. 장대비를 뚫고 확대간부 3,000여 명이 서초동 삼성본사, 양재동 현대기아차본사에 모였다. ‘금수저’는 부를 세습하고, ‘흙수저’는 가난을 세습하는 헬조선의 핵심세력이 재벌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5개 산별이 함께 재벌개혁연석회의를 꾸렸다. 현대기아계열사 사업장들은 그룹교섭을 진행 중인데, 6차에 이르기까지 현대그룹은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5월 말 쟁의권을 확보하고 15일 전면파업을 벌였다. LG, SK, 티브로드 등 재벌사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기술서비스노동자공투본을 꾸리고 재벌기업들의 비정규직 양산과 경영세습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한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22일 전조합원의 1박 2일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난세는 약자의 지옥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19살 청년노동자의 애

기가 우리를 울렸다. 그는 안전기준을 지킬 시간도 인력도 의지도 없는 외주회사에서 일했다.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하청의 재하청, 최저가입찰. 사람값이 싸지니 목숨도 따라 맥없이 떨어진다. 이 팍팍한 현실 속에 방향없는 분노가 책임있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에게 무차별로 향한 비극이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었다. 조선산업 망한다고 구조조정 난리지만 조선사는 정·재계 관계자 전관예우로 수억 원을 챙겨줬다. 정부는 여전히 20대 국회에 구조조정에 협조할 것을 주문한다. 난세는 약자에게만 지옥이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세월호 참사는 약자만 남겨둔 채 책임자들은 모두 도망친 헬조선의 축소판이었다. 경기도부 조합원들은 세월호 진실규명 운동에 늘 함께해왔다. 강자만 살아남는 세월호 방식이 아니라, 약자부터 구하는 타이타닉 방식을 구현해 온 우리다. 우리는 약자의 지옥에서 권리를 찾고자 나서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정의파다.

지부 17일 조기조정 돌입

경기지부는 시화에 이제 막 싹튼 대창지회를 지키고, 두원정공, 주연테크, 신한발브, 시그네틱스 등 경영상황에 따라 투쟁이 격화될 변수가 있는 사업장들을 옹호하기 위해 투쟁일정을 당겼다. 금속노조 일정보다 2주 가량 이른 **오늘(17일) 집 단교섭 쟁의조정절차에 들어간다.**

지부 운영위는 5월 1,200명이 모인 체육대회의 기운을 이어 6월 30일 확대간부, 7월 13일 전조합원 파업을 통해 대창지회를 지원하고 재벌개혁 투쟁에 힘을 싣기로 했다. 각 사업장의 변수에 따라 투쟁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압도적 찬성!

20~21일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압도적 찬성으로 헬조선을 뒤집을 노동권의 진한 향기를 만방에 퍼뜨리자.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좋다. 같이싸워 같이산다 좋다좋다. 승자독식 경쟁보단 돕고살길 원한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지부 집단교섭은 6월 16일 10차까지 진행됐지만 임금 안고, 공동요구안도 검토할만한 제시안이 없다. 각 사업장 조정절차를 고려해 11차 교섭은 2주 뒤인 7월 7일 현대케피코에서 열린다. “2주 간 시간이 충분하니 차기에는 반드시 논의할만한 안을 제출할 것”을 사용자측에 주문했다.

역동적인 계양전기의 신임 대표이사가 상견례 후 7차 만에 교섭에 나와 한 발언이 화제다. “교섭참가 그건 내 맘이지. 노사 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경영진이 모두 삼성출신으로 바뀌었다더니, 역시나 마인드가 ‘노조와 마주앉는 것 자체가 치욕’이라는 무노조경영 시절에 머물러있다. 지회는 ‘10년 안 싸웠는데 드디어 때가 왔다.’며 투쟁을 준비 중이다. **신한발브**는 주주변경 추진 과정에서 경영안정화가 쟁점이다. 1월에 이어 5월 상여금도 체불되면서 사장실 점거했었고, 알티캐스트 서울본사 투쟁을 확대한다. **주연테크**는 작년 9월부터 4차례나 대주주가 바뀌고 신임임원의 M&A 전력들이 알려지면서, 서울 본사 사무직 동료 50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지회는 다시 한 번 특단협을 체결했고, 사무직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옛날에 맨날 투쟁하던 무서운 아줌마들”과 “회사를 맘대로 팔아넘기게 둘 수 없다”며 용기를 낸 사무직원들의 앙상블이 기대된다.

목적한 두원정공지회는 6월 8일 상견례를 하고 2차까지 보충교섭을 했다. 경영변동 관련 논의와 대응으로 교섭이 늦어졌다. 9일~10일 확대간부 수련회를 다녀왔다. **대원산업** 사측은 단협적용범위 확대 등 지회의 주요 요구안 모두 수용불가 입장이다. **우창정기**도 고용안정 관련 핵심요구에 사측 제시안이 없다. **에스제이엠**은 사측이 2차까지 안을 제시했지만 기합의사항 외의 모든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이다. **현대케피코지회**는 그룹교섭, 집단교섭을 병행한다. 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주간연속2교대와 통상임금 등 지회 보충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오늘(17일)이 상견례다. **한온시스템평택지회**는 대전충북지부에서 교섭 중이다. 교대제 개선 등 현안도 있지만 매각 이후 노사관계를 만회하는 올해 투쟁이 중요하다.

끈질긴 삼성지회는 최근 지회 회계감사 해고를 ‘노조 탄압 목적의 표적해고’로 보고 투쟁 중이다.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는 틈만 나면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측에 맞서 평택·포승권역 간부들이 함께 투쟁한다. 화스텍 다수노조 관련 중노위 대응도 하고 있다. **하이디스지회**는 광화문 농성투쟁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수요일 저녁문화제에는 권역별로 지부 사업장들이 함께

한다. **한국쓰리엠지회(화성)**는 조기조정신청을 해서 5월 23일 쟁의권을 확보했다. **우리지회**는 기본급 4.5% 인상 안이 나왔다. **경기금속지역지회**는 화성지역선전전, 안산지역선전상담사업을 하고 있다. 5월 말 10주년 행사를 한 **대한솔루션분회**는 승진차별 대응, 산재은폐 대응 등 활발한 현장활동 중이다. **동아공업분회**는 17일 지부와 함께 조정신청을 한다. **승크키본**은 75,000원 인상안이 나왔다. **시그네틱스**는 작년부터 예고했던 폐업카드를 아직 꺼내들지 않은 가운데 129차에 이르는 교섭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말레동현화성지회는 울산과 화성을 오가며 9차까지 교섭을 했지만 진전이 없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안이 나왔고, 단협조항 상향도 수용불가 입장이다. 17일 지부와 함께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코리아에프티**는 사측이 수당, 상여금 인상은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버틴다. 교섭 날은 조합원 출근집회를 하고 안성권 사업장들이 힘주러 간다. 22일 교섭경과에 따라 조정에 들어간다. 지회의 대응으로 사측 주도의 노사협의회 추진은 멈춘 상태다. **지큐피앤씨 지회**는 8차까지 교섭을 했다. 회사는 5차까지 안 없다고 버티다가 최근 임금안 일부를 제시했다.

안산에서 구명내자

4월 24일, 시화공단의 ‘대창’에서 산업용 황동봉을 만드는 260여 명 노동자들이 지부의 새 식구가 됐다. 5월 지부 체육대회에는 230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이 참가해 ‘대창노조 만들어 대창인생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회사는 4명짜리 휴면노조를 알박기 해놓고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피하는 중이다.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금속노조와 교섭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아직 망설이고 있다.

지회는 조합원 교육, 매 주 소식지 발행, 화요일 아침 출퇴, 현장 노동안전현황 점검 등 활발하게 현장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안산권역 사업장들도 권역실천을 대창에 집중한다. 에스제이엠 투쟁 승리 후 안산에서 아직 새싹을 틔우지 못했다. 지부는 대창지회의 성공이 안산 지역의 회사-상공회의소-관료 등 노조파괴의 검은 커넥션을 뚫고 노동조합을 확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투쟁을 집중할 예정이다. **안산에서 구명 제대로 내자!**

